

圖書館과 大學教科課程

Kenneth Croslin

韓國의 大學, 특히 教育大學의 커리큘럼計劃에 包含하도록 考慮되어야 할 한가지 重要한 것은 圖書館의 利用法과 價値에 關한 것이다.

오늘날 師範教育에 있어서 重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圖書館資料의 利用과 價値에 對한 知識이 教師들에게 缺如되어 있다는 點이다.

根本적으로 이問題는 간단한 것이다. 大部分의 경우 교육計劃이란 教師와 學生과 教科書의 三者가 具備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完全하다고 할수 없다. 質的인 教育計劃은 亦是 무엇보담도 잘 組織되고 잘 運營되며 많이 利用되는 圖書館이라는 補助資料의 센터가 包含되어야 한다.

오늘날 學生들은 有史以來 全世界를 通하여 얻는 廣範圍한 지식의 寶庫속으로 파고들어가는 機會를 拒絶當해서는 안된다. 數世紀에 걸쳐 記錄된 他人의 研究와 經驗內容에서 德을 본다는 것은 모든 生物이 가지는 天賦의 權利중에 人間만이 가질수 있는 特典이다.

이 世上의 모든 知識을 다 읽고, 간직하고 또 그것을 後孫들에게 傳達할수는 없으므로 아무리 先生이 훌륭하더라도 自己 能力의 制限이 있으니 各生徒의 가지가지 關心과 好奇心을 妨害하거나 制約을 加해서는 안된다는것은 더욱 明白하다.

여기에 對한 唯一한 解答은 훌륭한 先

生을 “산 몸으로” 確保하는 것과 補助 先生의 役割을 하는 여러가지 冊과 그外 資料를 가지고 學生들을 둘러싸는 것이다.

將來를 觀望할때 韓國에도 모든 國民學校 中, 高等學校, 大學校에 圖書館이 設立될것 같다. 事實上 圖書館發展計劃은 가까운 將來에 圖書館法이 通過됨으로서 促進되리라는 展望이 있고, 現在에도 活氣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圖書館 發展을 期待한다는것은 鼓舞的이긴 하지만 그利用方法에 對한것을 除外하고는 이러한 모든 圖書館이 歷史的 意義外에 實用的인 見地에서는 別價値가 없다.

韓國의 여러 學校에서도 學校圖書館을 두어 잘 組織하고 整備 運營하는 믿을만한 일을 할수 있기는 하나 그 利用方法和 써-비스가 基本的인 考慮對象이 되지않는限 그런 施設은 浪費가되고 마는 것이다.

師範教育計劃에 있어서 그러한 도서관資料와 施設의 活用과 價値에 對하여 教師들에게 教育하는 確實한 責任이 있어야 한다.

만일 선생이 도서관을 어떻게 利用하는가를 모른다면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엔 잘 가지 않게 될것이며 더욱이 또 利用할수 있는 자료에 對하여 선생이 모른다면 學生들이 이러한 자료와 상관하는것을 꺼려

하게 된다. 그러나 펴 두문 일어진 하지 만 先生自身이 모르는 자료를 紹介하기 爲하여 學生들을 도서관으로 보내는수도 있다.

그와反對로 圖書館利用法에 關한 教育을 받은 先生은 學生에게 教室內에서나 室外 어디서나 배우겠다는 欲望을 불어 넣어 주는 機會를 많이 가질 것이다.

圖書館에 對한 教育이 教師養成計劃의 여러면에 包含되어야 하겠지만 나의 見解로서는 教室에서의 授業에 圖書館의 價値와 利用法을 爲主로한 特別한 課目을 커리큘럼에 包含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最大限의 效果를 거둘수 없으리라고 본다.

또 如斯한 內容이 價値있는 것이라고 느껴 必要性을 認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國語科나 社會科學의 一部로 或은 學習科目에다 併合시키거나 其他 如何한 科目의 一部로서도 습쳐서는 안된다.

모든 學門分野에서와 같이, 二分離된 學科로서 거기에 適應되는 專門書籍과 課程이 必要하다.

圖書館에 關한 科目이 效率的으로 잘 運用 되려면 다음과 같은 內容을 들수 있다.

1. 圖書館利用法에 對해서 教師들을 가르친다.
2. 學生들에게 도서관 利用法을 가르치도록 教師들을 教育시킨다.
3. 質的으로 우수한 교육의 機會를 마련하기 爲해서는 도서관이 利用되며,

또 利用되어야 한다는 것을 教師들에게 教育시킨다.

4. 教師들에게 基本참고자료의 사용법을 教育시킨다.
5. 教師들에게 基本지식이 되는 教材선택과 索引, 一般目錄에 익숙하도록 教師들을 教育시킨다.
6. 도서관과 教師간의 關係와 協調方法을 教師들에게 교육시킨다.

초급大學에 있어서 도서관 教育課目的 發展에 必要한 몇가지 要點을 提示하면

1. 이 과목은 充分한 資格을 具備한 사람, 即 도서관學의 學位를 가지고 二年以上의 도서관근무 經驗과 훌륭한 教育經驗을 가진 者로서 B.A學位 所有者가 가르쳐야 한다.
2. 이 과목은 한 學期에 適當 3時間으로 學點配當을 해야 한다.
3. 이 과목은 專門化된 기술적 도서관 運營이 아니고 主로 教育資料와 學習方法을 取扱한것임으로 學點은 圖書館學 보다는 오히려 授業訓練에 對해서 주어야 한다.
4. 이 과목은 全教育計劃에서 可及의 일찌기 教育시켜야 한다.

經驗上으로 보아 선택과목이라는 것은 別로 價値가 없다.

가까운 將來에 교원양성계획에 있어서 한국의 教師들에게도 이런 特別한 訓練이 包含되도록 진지한 思慮가 있을것을 期待한다. (筆者 피바디 교육사절단)